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77期(2026.02.13) WWW.MINGHUI.ORG

한글판 1041호 minghui.or.kr



▲ 선원(神韻)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계속 열풍을 일으키며, 전달하는 자비로 무수한 중생을 구도하고 있다. 대만에서 33회 공연을 마친 선원 신기원 예술단은 아시아 순회공연의 다음 행선지인 한국으로 향했다.

주요내용

- 【해외종합】 2026년 중국 신년 기간 선원 공연 중국 내륙 시청 방법
- 【중국소식】 ‘4·25’ 내막 폭로: 장쩌민 시기의 학살 계획과 불법적 성격 규정
- 【수련교류】 경찰이 함부로 시민을 과출소로 데려가 심문할 수 있는가?
- 【수련교류】 메일함 공유에 관하여

〈목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2026년 중국 신년 기간 선원 공연 중국 내륙 시청 방법	10

■ 중국소식

‘4·25’ 내막 폭로: 장쩌민 시기의 학살 계획과 불법적 성격 규정	11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4

■ 수련교류

호칭에 대해 간단히 논함	18
경찰이 함부로 시민을 파출소로 데려가 심문할 수 있는가?	19
최근 칭다오 지역에서 전해지는 말	24
메일함 공유에 관하여	25
변호사 접견권 권리수호 안내 카드(휴대용)	26
2001년 천안문 광장에서 천목으로 본 것에서부터 말하다	28
대련 세 폭: 찢잔런하오·온 뜰에 길상·하늘이 내린 큰 복	34
더 이상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지 않다	35
미국 중앙정보국의 이 방법, 우리도 참고할 수 있는가	43

■ 시사평론

또다시 맞이한 적마홍양(赤馬紅羊), 2026년 새해의 ‘시대적 기질’	46
가오이천 기소를 통해 본 ‘비상 기관’ 속 개인의 위험	50
‘장기 저장고’로 전락된 중국인들	52

■ 문화예술

‘이중 투고’에 관하여	59
작은 상식 ‘미국 회사가 발행한 인쇄물의 저작권과 발행 문제’	61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미국 선원(神韻) 신기원예술단이 올해 대만 7대 도시에서 진행한 33회 공연이 원만히 막을 내렸다. 2026년 2월 8일, 대만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마친 선원예술단은 아시아 순회공연의 다음 행선지인 한국으로 향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타이베이, 타오위안, 가오슝, 먀오리, 장화, 자이, 타이중 등 7개 도시에서 선원 공연이 열렸으며 대회 매진을 기록했다. 12월 30일과 1월 27일, 선원은 두 차례 타이베이를 방문해 총 13회 공연을 펼쳤으며 관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원래 천국은 이런 모습이구나!” 관객들은 찬사를 보냈고, 박수와 탄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영혼을 뒤흔드는 이 예술의 향연을 함께 즐겼다. 쥐룽타이(卓榮泰) 대만 행정원장은 선원에 대해 “시각적 즐거움과 충격”, “선원 공연을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대만 행정원 정무고문은 “선원은 중화문화 5천 년의 정수와 전승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대만 국방싱크탱크 학자는 “선원은 춤으로 서사하며 긍정적 에너지를 갖췄다”라고 평했고, 추타이싼(邱太三) 전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선원은 세계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 마지막 주부터 2월 초까지, 선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공연을 이어갔다. 선원의 명성은 이미 유럽과 미국 관객들의 사교계에 널리 퍼졌으며, 선원이 전달하는 선량함과 자비는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많은 서양 주류 관객들은 선원이 신성한 구원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의 정신을

각성시킨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대영제국 훈장 수훈자 로렌스 버 (Lawrence Burr)가 영국 본머스에서 선원 공연을 관람했다. 로렌스 버는 “비할 데 없이 훌륭합니다! 우리는 공연의 다채로운 색채를 보려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선원) 무용가들의 뛰어난 기량과 아름다운 춤사위에 대한 찬사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 유럽에서 많은 공연을 봤는데, 선원이 아닌 다른 많은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선원이 그중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감탄했다. 버는 “선원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라고 생각했다. 그는 “요즘 세상에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일을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의 선원을 보세요. 선원은 다채로운 색채와 생기발랄함, 심지어 천상의 복숭아까지 가져다주어 제가 가질 수 있게 했고, 제 청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줍니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선원 열풍이 불었다. 풀리아주 바리(Bari)시에서는 많은 관객이 몇 달 전부터 티켓을 예매했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려야 했다. 마르케주 안코나(Ancona)시에서도 현지 3회 공연이 일찌감치 매진됐으며, 많은 사람이 몇 달 전부터 티켓을 예매했다. 2026년 2월 2일, 풍경화가이자 고전 예술 과정 수석 강사 안토니오 렌치 (Antonio Lenzi)가 이탈리아 안코나에서 선원 공연을 관람하고 찬사를 보냈다. “선원은 절대적으로 ‘신이 춤추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전방위적으로 보여줍니다. 공연은 정서적으로 저를 깊이 감동시켰고, 정말 제 내면을 비할 바 없이 전율케 했습니다” 그는 “제가 느끼기에 선원 공연은 마치 관객에게 감로수를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모

든 무용수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떨어진 눈물방울과 내려진 감로수는 만물과 모든 생명의 정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빛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렌치는 또 이렇게 말했다. “선원 공연은 오늘날 사회에 지극히 중요합니다.”

선원예술단 2026년 영국 순회공연은 1월 2일 정식으로 막을 올렸으며, 영국 12개 도시에서 52회 공연이 예정돼 있었다. 티켓 판매는 폭발적이었으며 거의 매회 매진됐다. 그러나 공연 전후로 여러 주최 극장이 중공 스파이와 그 하수인으로부터 협박 메일을 잇달아 받았다. 어떤 것은 중문으로, 어떤 것은 영문으로 작성됐으며, 내용은 폭력적인 위협과 정치적 압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2026년 2월 4일, 영국 안보장관 댄 자비스(Dan Jarvis) 의원은 영국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학회에 서한을 보내, 선원 공연 극장과 관련 인사를 대상으로 한 중국공산당(중공) 스파이 및 그 하수인의 신체적 공격 위협 행위는 극히 악질적이며, 영국 사회가 공동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안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영국 내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협박·괴롭히거나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영국 정부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타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2일부터 4일까지, 파룬궁수련자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 힐튼 호텔과 미국 의회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온 종교자유에 관심을 가진 개인 및 단체 관계자 약 2천 명이 한자리에 모여, 언론에 널리 보도되지 않고 무시된 종교 신앙의 자유 침해 행위에 주목하며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파룬따파 정보센터(Falun Dafa Information Center) 집행이사 레비 브라우드(Levi Browde)는 정상회의 패널 중 한 명으로 참석해 파룬따파가 완만하고 느린 5가지 공법을 결합한 동양의 전통 심신 수련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파룬따파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널리 환영받았다고 설명했다. 1999년 7월 중공은 파룬궁을 불법적으로 탄압하며 대규모 박해를 일으켰고, 박해받은 파룬궁수련자는 수천만 명에 달한다. 중공은 이 박해를 해외까지 확장했으며, 미국에서도 미디어전(戰)과 법률전을 이용해 선원예술단을 탄압하고 있다. 브라우드는 세미나에서 중공이 중국 국외의 기술 플랫폼을 이용해 허위 부정적 정보를 조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많은 서양 팟캐스터가 거의 똑같은 대본을 사용해 선원과 파룬궁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나중에 자신들이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접근받았거나 돈을 받았거나 유료 초청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2월 4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공동의장 샘 브라운백(Samuel Brownback)은 중공이 거액의 자금과 첨단 감시 기술을 동원해 파룬궁을 포함한 여러 신앙 단체에 대해 조직적인 박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더욱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브라운백은 말했다. “올해만 해도 공산 중국은 수십억 달러를 써가며 중국 내 모든 종교 신앙을 탄압하고 있는데, 그들은 최대의 증오와 적의를 품고 파룬궁을 탄압합니다. 우리는 파룬궁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여겨야 합니

다. 이들은 적지에서 정권(중공)에 맞서고 압제자에게 저항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봉기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2월 2일과 3일, 힐튼 호텔 로비에 파룬궁수련자들이 부스를 마련했다. TV 화면은 파룬따파의 진상과 지난 26년간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에 가한 잔혹한 박해를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파룬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부는 이전에 파룬궁과 파룬궁이 중공에게 박해받는 사실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 박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해 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오클라호마 대학 은퇴교수 앨런 허츠크(Allen Hertzke)는 1999년이나 2000년경에 이미 파룬궁이 중공에게 박해받는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했다. 당시 그는 ‘국제종교자유법안’ 추진 과정을 연구하고 있었다. 허츠크는 워싱턴 DC에서 박해를 피해 탈출한 한 파룬궁수련자를 인터뷰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는 파룬궁수련자가 중국 종교자유 의 중요한 옹호자라고 생각했다.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중국 기독교인과 위구르인의 처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파룬궁수련자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단결해야 합니다.” 허츠크는 말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박해를 이겨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년 2월 9일,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화교 쑨야오닝(孫耀寧, Yaoning ‘Mike’ Sun)이 중공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쑨야오닝은 2024년 12월 19일 체포됐다. 그는 2022년 캘리포

니아주 모 시의원 선거 캠프 본부장을 맡은 기간 중화인민공화국의 불법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 인정 합의서에 따르면 쑨야오닝은 법률 요건에 따라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대리인 신분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연방 검찰은 쑨야오닝이 또 다른 남성 천쥘과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천쥘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미국 내 파룬궁수련자를 공격하려 모의한 혐의로 2024년 연방 교도소 2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미 연방수사국(FBI) 로스앤젤레스 지국 아킬 데이비스(Akil Davis) 부국장은 쑨야오닝을 기소할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을 겨냥한 중공의 정보 활동과 악의적 영향력 행사의 광범위함을 부각한다”고 밝혔다.

2월 5일부터 6일까지,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북섬 북동부에 위치한 베이 오브 아일랜드(Bay of Islands)의 와이탕이(Waitangi) 마을을 찾아, 매년 열리는 와이탕이 페스티벌(Waitangi Festival 2026)에 참가했다. 수련자들은 행사 현장에 파룬따파 소개 부스를 마련하고, 공법 시연과 무료 공법교육을 하는 한편, 뉴질랜드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파룬따파의 ‘진선인’ 수련 이념을 공유했다. 끊임없이 오가는 행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공법을 체험하며 소감을 나눴다. 적지 않은 이들은 짧은 연공 체험만으로도 내면의 균형과 선한 마음,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찾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채텀 제도 출신의 마오리 변호사 마우이 솔로몬(Maui Solomon)은 부스 앞에 한참 동안 머물렀다. 그는 최근 1년여 동안 명상을 접해 왔으며, 안으로 찾는 수련을 통해 자신을 다시 이해하고 세상과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맺

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룬궁을 배우고 싶다며, 인터넷으로 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마우이는 진선인의 가치는 개인의 관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진리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2월 7일, 호주 시드니 뱅크스타운(Bankstown)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열린 떠들썩한 설날 축제 현장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평화롭고 의미 있는 소개 행사를 열었다. 수련자들은 공법 시연과 진솔한 교류를 통해 시민들에게 중국의 전통 수련법인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상대로 지속해 온 박해 진상을 알렸다. 행사 중 많은 참가자가 부드럽고 우아한 파룬궁 공법 시연에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봤으며, 수련자들이 파룬따파의 핵심 이념인 진선인에 대한 인식과 실천 체험을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공법이 전하는 내면의 평온한 에너지와 도덕적 이념에 깊이 감동한 방문객들은 잇달아 파룬따파를 배워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두앙(Duong)은 2022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겪은 깊은 마음의 여정과 풍성한 수확을 공유했다. “수련 전에는 잦은 병치레와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어요. 매일 꾸준히 수련하면서 몸은 점점 건강해졌고, 피부에는 윤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마음에는 평온과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졌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또 진선인 원리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2월 8일, 일본 히로시마 파룬궁수련자들은 히가시히로시마 예술문화홀에서 열린 제35회 ‘히가시히로시마시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했다. 파룬궁수련자는 무대에서 요고(腰鼓)춤을 공연하고 파룬궁을 소개했으며,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시연했다. 많은

관객이 공법을 배운 뒤 몸이 매우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야마모토는 “무대 공연을 보면서 동작을 함께 배웠는데, 온몸의 혈액이 모두 잘 통하는 것 같고 이 공법이 매우 좋다고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2026년 중국 신년 기간 선원 공연 중국 내륙 시청 방법

[명혜망] 2026년 중국 전통 신년 기간, NTD TV는 ‘NTD TV 글로벌 화인 신년 음악회-선원 공연’을 독점 방영한다. NTD는 위성(JCSAT), 동태망, 무계망, 아이보TV(iPPOTV)를 통해 중국 내륙으로 송출하며, 해외 TV 채널은 미국 지역에만 방영한다. 로쿠(Roku)는 미 동부 채널에서만 방영(미국 전역에서 시청 가능)한다.

2026 글로벌 화인 신년 음악회(선원 공연) 중국 내륙 방영 시간

- 첫 방송: 2026/02/16 선달그믐 19:30
- 재방송: 2026/02/17 정월 초하루 07:30
- 재방송: 2026/02/17 정월 초하루 13:00

변경 사항이나 해외 시청 안내는 ‘[예고] NTD 글로벌 화인 신년 음악회-선원 공연 방영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중국 내륙 관객 시청 방법은 천지행 문고의 ‘중국 내륙 선원 공연 시청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4·25’ 내막 폭로: 장쩌민 시기의 학살 계획과 불법적 성격 규정

글/ 필도(筆道)

[명혜망] 1999년 4월 25일, 1만 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자가 베이징 중심에 있는 국가신방국(國家信訪局, 청원국)으로 가서 평화적으로 청원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로부터 “중국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이성적인 권리 수호 활동”이라고 칭송받았다. 최근 한 독자가 명혜망에 제보해 중공(중국공산당) 고위 관리가 폭로한 일부 정보를 전했다. 이 내부 세부 사항은 그날 중난하이(中南海) 붉은 담장 뒤에 숨겨진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내막을 드러냈다. 바로 고의로 기획된 무장 학살이 하마터면 벌어질 뻔했으며, 그 이전의 ‘성격 규정’ 과정은 전형적인 위헌이자 불법적인 조작극이었다는 것이다.

군대 이동 및 복장 변경 대기: 실탄 장전하고 ‘6·4’ 재연하려 해

이 독자의 제보에 따르면, 한 중공 고위 관리는 ‘4·25’ 청원 당일 외부에서 보기에는 수련자들이 조용하고 질서 있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푸유가(府右街) 주변의 분위기에는 극히 살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중공 최고지도자 장쩌민은 비밀리에 부대에 명령해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했다. 사람들의 이목을 속이기 위해 이 군인들은 전부 경찰 제복으로 갈아입었고, 실탄을 장전했으며, 명령만 떨어지면 청원 현장의 소위 ‘중난하이 포위자’를 전부 사살하려 했다.

소식에 따르면 당시 여러 중앙 지도자가 극력 만류하며 먼저 수련자 대표와 협상할 것을 청했고, 만약 청원자가 철수에 동의하면 발포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후 고위 관리 몇 명이 청원 수련자와 면담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자 파룬궁수련자들은 신속하고 평화롭게 철수했으며, 심지어 바닥의 쓰레기까지 주워가며 매우 높은 소양을 보여주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날 밤 푸유가는 1989년 ‘6·4’(천안문 사태)의 피비린내 나는 참사를 재연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황당한 성격 규정 과정: 각 부위원회 ‘사교’설 책임지기 거부

중공 고위 관리는 또 법률적 차원에서 거대한 모순점을 드러냈다. 파룬궁에 대한 성격 규정은 어떠한 사실 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장쩌민 개인의 질투와 독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국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논리에 따르면 중대한 성격 규정은 반드시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급 기관에서 문제 발견 -> 부위원회 조사 연구 -> 예비 결론 도출 -> 국무원 보고 -> 지시 획득 후 집행’.

하지만 파룬궁 문제에서는 절차가 완전히 거꾸로 됐다. 장쩌민이 먼저 멋대로 성격을 규정하고, 뒤이어 각 부위원회 책임자들에게 강제로 이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도록 명령했다. 베이징시, 공안부 등 지도자가 참가한 내부 회의에서 조사 사실과 상반되는 이 성격 규정에 대해 그 어떤 부위원회 지도자도 ‘책임을 뒤집어 쓰려’ 하지 않았다. 결국 장쩌민의 압력 하에 참석자들은 끝내 사정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당시 국가체육총국 국장 우사오쭈(武紹祖)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일치단결했다.

이 장면은 평론가들에게 ‘문혁(문화대혁명)’의 재연으로 비유됐다. 당시 ‘우파 선발’ 회의를 할 때 화장실에 한번 다녀왔더니, 돌아와 보니 자신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우파’로 추대돼 있었다는 일화와 흡사하다.

명혜망: 집단학살

명혜망이 수년간 수집한 증언과 데이터에 따르면, ‘4·25’ 청원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후에도 장쩌민은 파룬궁수련자의 이성적인 태도 때문에 손을 떼기는커녕, 오히려 같은 해 7월부터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이 탄압은 그 어떤 후임 당수과 손에서도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26년 넘게 지속됐다. 박해는 여전히 피비린내 나지만 더욱 은밀하고 제도화됐다.

1999년 ‘4·25’에는 공개적인 집단학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후 탄압을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된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은 조직적인 납치, 전향(수련 포기 강요), 감금, 고문을 자행했다. 여기에는 장쩌민이 직접 명령해 수많은 청원 파룬궁수련자를 장기 공급용으로 비밀리에 감금하고 실시한 생체 장기적출도 포함된다. 첫날부터 거짓말과 위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집단학살에 대해 캐나다 인권변호사는 “이 지구상에서 전례 없는 죄악”이라고 칭했다.

맺음말

이번 독자의 제보는 장쩌민이 일으킨 이 파룬궁 탄압이 어떠한 법적 기초도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 내부에서조차 합의를 얻지 못했으며 누구도 장쩌민을 대신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토록 27년째 지속되는 정치적 박해가 비단 원래 중국 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하던 파룬궁 신앙 단체를 겨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문혁 이후 전체 중국인의 도덕과 양심에 대한 과멸적인 유린임을 당신은 이미 인식했는가? 만약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검색해 보라. 중국 사회의 잇따른 도덕성 타락, 대규모 해악 사건이 2000년대 초반부터 갑자기 출현해 그때부터 사람들의 가치관을 빠르게 전복시키지 않았는가?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동닝시 파룬궁수련자 선진샹(申金祥), 양쿠이(楊奎), 자옌핑(賈豔鳳), 쑤홍(蘇宏)이 2026년 2월 4일 하이린시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중: 쑤홍은 불법 징역 9년과 벌금 5000위안을 선고받았다. 선진샹, 자옌핑은 각각 불법 징역 5년과 벌금 2000위안을 선고받았다. 양쿠이는 불법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00위안을 선고받았다. 4명은 현재 모두 항소했다. 2025년 7월 18일 오후 4시경, 동닝시 공안국 정보대대(정치보위대대), 형사정찰대대, 제1파출소, 제2파출소가 합동 작전을 펼쳐 파룬궁수련자 10명을 납치하고 다수 수련자의 집을 불법 가택수색했다. 남성 수련자 선진샹, 양쿠이는 동닝시 구류소에 감금됐다. 여성 수련자 자옌핑, 쑤홍, 쑤잉(蘇英) 3명은 무단장 구치소로 납치됐다. 8월 19일, 정보대대는 선진샹, 양쿠이, 자옌핑, 쑤홍을 모함한 사건을 하이린시 검찰원으로 넘겼다. 12월 24일, 하이린시 법원은 선진샹(남, 66세), 양쿠이(남), 자옌핑(여), 쑤홍(가명 쑤홍·蘇紅, 여) 4명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지린성 화톈시의 62세 파룬궁수련자 푸런장(付仁江)은 2025년 2월 11일, 화톈시 공안국 치신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화톈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채 모함당했다. 이후 화톈시 법원은 그에게 불법적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6년 1월 21일, 그는 지린성 감옥으로 끌려가 계속해서 박해받고 있다. 푸런장은 두 차례 불법 강제노동, 두 차례 불법 판결을 당해 도합 12년 반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며 공주링 감옥에서 ‘시체 침대’에 묶기, 장시간 잠 안 재우기, 구속복 입히기, 구속 벨트로 매달기 등 혹형을 당했다.

허베이성 창저우시 런추시 파룬궁수련자 평쭈샤(豐素霞·여·62세)가 2025년 10월 10일 납치돼 불법 가택수색을 당하고, 런추시 구치소에 감금돼 모함당했다. 2026년 1월 6일, 그녀는 런추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고 3년 3개월의 부당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녀는 법에 따라 항소하고 있다. 쭈샤는 런추시 추안진 베이차오커우 1촌 사람이다. 1998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그녀는 심신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매사 먼저 타인을 배려하며 언행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준칙으로 삼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보기 드문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산둥성 웨이팡시 서우광시의 60대 파룬궁수련자 런춘롄(任春蓮)은 2025년 4월 22일 지타이 파출소 경찰 둥즈화(董志華) 등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그녀를 병원으로 끌고 가 여러 차례 신체 검사를 강요했으며, 매번 불합격 판정이 나왔음에도 서우광시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는 그녀를 강제로 웨이팡시 구치소에 감금했다. 세 차례 불법 재판을 거쳐

2026년 2월 2일 오후, 서우광시 법원은 그녀에게 억울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했다. 런춘렌은 감금된 후 신체검사에서 여러 질병이 발견됐고, 수감 기간 여러 차례 실신했다. 변호사는 그녀를 위해 보외취의(수감 중 병원 치료)를 신청했으나, 서우광시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은 줄곧 거부했다.

산둥성 웨이하이시 구산(嵩山)진 파룬궁수련자 쉬아이친(許愛琴)이 불법적으로 1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 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받고 있다. 현지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은 전 과정을 암암리에 조작했고, 모함 과정이 불투명해 외부에서는 오랫동안 그녀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없었다. 2023년 10월 22일, 쉬아이친은 구산 장터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파룬궁 진상 달력을 나눠주다가 구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그녀는 15일간 불법 구류됐다가 2023년 11월 6일 귀가했다. 그러나 구산 파출소 경찰은 박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현지 검찰원과 법원에 모함했다. 그러나 구산 파출소 경찰은 박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현지 검찰원과 법원에 모함했다. 지난 2025년 6~7월경, 현지 공·검·법은 쉬아이친을 다시 납치했다. 2026년 1월 초, 외부에서는 그녀가 불법적으로 1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네이멍구 츠핑시 54세 파룬궁수련자 추이이리(崔毅立)가 불법적으로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 12월 25일 츠핑시 쑹산구 구치소에서 후허하오터시 여자감옥으로 이송됐다. 추이이리의 근무지는 츠핑시 바이인화 철도분공사다. 2025년 5월 21일 오전, 그녀는 직장에서 경찰에게 납치됐다. 이후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이른바 주요 혐의는 그녀가 ‘해외와 연락’하고, 방화벽을 넘어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하며, 대법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인쇄했다는 것이다. 추이이리의 건강 상태는 줄곧 좋지 않았다. 멀리 해외에 있는 남동생은 누나의 건강을 걱정해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허난성 신양시 74세 파룬궁수련생 장추쥬(張秋菊)가 2025년 6월 하순, 신양시 공안국 스허지국 국보대대 대장 가오즈하이(高智海)와 국보 경찰 리스웨이(李士偉)에게 납치돼 신양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28년 1월에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신양시 황촨현 법원에서 1년 6개월의 부당한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장추쥬는 과거 암을 앓았으나, 파룬파 수련 후 건강을 회복했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박해를 시작한 이후, 그녀는 진선인 수련을 견지하다 여러 차례 납치와 불법 감금을 당했고, 중공 법원에서 4차례 불법 판결을 받으며 장기간 잔혹한 박해를 겪었다.

베이징시 화이러우구 퇴직 여교사이자 파룬궁수련자 위잔친(於佔芹)은 2025년 7월 4일, 화이러우구 공안국 국보, 치안대대 및 룽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이후 순이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베이징시 화이러우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그녀가 세 번째로 불법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2021년 9월 19일, 불법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집에 돌아온 지 4개월 만인 2022년 7월 7일, 위잔친은 진상을 알리다 또다시 악인에게 모함당해 화이러우구 구치소에 감금됐다. 그 후 불법적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베이징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감옥에서 그녀는 심각한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박해를 당했다.

호칭에 대해 간단히 논함

글/ 중국 쓰촨성 대법제자

[명혜망] 많은 수련자가 자신의 손주들에게 사부님을 ‘사부 할아버지(師爺爺)’, ‘리 할아버지(李爺爺)’로 부르도록 가르친다고 한다.

이틀 전 수련자 교류 문장 ‘대법이 나를 바꾸고 나의 가정도 바꾸었다’에 “저는 고등학교에 추천 입학하게 됐는데, 할머니의 사부님이신 리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쓴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마음이 몹시 편치 않았다.

비록 수련자들이 손주들에게 사부님을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치는 것은 존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왜인가?

개인적인 이해로는 다음과 같다. 할머니의 사부님은 바로 할머니의 아버지에 해당한다. “하루 스승은 평생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손주들에게 우리 사부님을 ‘사부 할아버지, 리 할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는 것은 자신을 사부님과 같은 급에 놓고 대등하게 보는 것과 같은데, 또 어떻게 ‘사부(師父)’ 두 글자의 장엄함과 신성함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속인 중에서도 어른과 아이, 높고 낮음을 따진다. 만약 할머니에게 부모가 있다면 또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부님은 중생을 널리 구하러 오셨고, 사부님은 대법제자의 사부님이시다. 우리 주변의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우

리는 그들에게 우리 사부님을 사부님, 리 대사(李大師)님으로 호칭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사람의 것을 섞지 말아야 가장 좋은 존칭이다. 이것은 또한 중생이 얻게 되는 특별한 은혜다.

개인적인 작은 깨달음으로, 글을 쓴 수련생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기에 수련생 여러분께 참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부적절한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지적을 바란다.

경찰이 함부로 시민을 파출소로 데려가 심문할 수 있는가?

글/ 중국 대법제자

경찰이 불법적으로 설정한 공적 의무에 대해 우리는 시민으로서 가진 시민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

며칠 전, 포럼에서 게시물을 하나 보았다. “예전에 고속도로 입구에서 교통경찰이 제 운전면허증을 검사했는데, 거기에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정보가 표시돼 있어 불법 구금당했고, 수련자들과 함께 파출소로 납치됐습니다. 파출소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악의 심문에 협조하지 않았고 줄곧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수련자에 관한 정보도 일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은 아직까지 좀 의문이 있어서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시 경찰에게 심문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상대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유 같은 건 없고 이건 사건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당신이 ××고속도로 입구에서 경찰에게 차단된 일

에 대해 묻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으니 그냥 절차를 밟는 것이고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그냥 이야기 좀 나누는 것이니 별일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겠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고 발견하면 누구든 불러서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답변할 의무가 있고요.’ 여기까지 듣고 저는 좀 혼란스러웠고 어쩌면 경찰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부분적으로 심문에 협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무엇인지, 왜 여기로 끌려왔는지 등입니다. 경찰의 이런 논리가 합법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를 타파해야 할까요?”

여기서 내 경험을 통해 해당 수련자의 의문에 답하고자 한다. 우리는 대법제자인 동시에 합법적인 시민이다. 우리는 시민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만 알고 권리가 있다는 것(《헌법》 제37조 규정: 시민의 인신 자유는 침범받지 않는다. 《헌법》 제38조 규정: 시민의 인격 존엄은 침범받지 않는다)을 몰라서는 안 된다. 경찰의 행위는 공개적으로 인신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 존엄을 침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에게 법 집행 권한이 있다는 것만 알고 경찰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즉 ‘법적 근거가 없으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된다.

교통경찰은 수련자의 신분 때문에 수련자를 억류할 권한이 없으며 수련자의 신분 때문에 그를 파출소로 보낼 권한은 더더욱 없다. 파출소 경찰이 수련자에게 절차를 밟으라고 한 것은 수련자의 의무가 아니다. 경찰이 수련자에게 절차에 협조하라고 한 것은 경찰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설정한 의무로 시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수련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의무(경찰이 불법적으로 설정한)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이 수련자는 경찰이 불법적으로 의무를 설정하며 박해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발견하면 누구든 불러서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답변할 의무가 있고요.” 경찰이 말한 이 상황은 수련자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경찰은 개념을 바꿔치기하고 있다. 경찰이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질문하는 것과 파룬궁수련자의 신분증에 표시를 해두고 불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어떤 상황에서 합법성을 가질 수 있지만, 후자는 신앙에 대한 박해이며 중국공산당(중공)이 체계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일부분이다. 불법적 박해에 직면해 파룬궁수련자는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박해를 저지하고 진상을 알려야 한다.

어떻게 박해를 저지하고 타파할 것인가? 나도 진상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기어이 나를 납치하려는 경찰을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시민감독권을 행사해 경찰을 바로 감찰부서에 신고했고 납치는 순식간에 와해됐다(《헌법》 제41조 규정: 시민에게는 감독권이 있으며 비판건의권과 신소·고발·고소권을 포함한다).

이런 신고는 첫 번째 현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즉 수련자가 중공 교통경찰에게 납치당할 때, 교통경찰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고, 교통경찰이 증거를 내놓지 못하거나 내놓은 증거가 합법성·진실성·관련성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바로 시민감독권을 행사해 교통경찰을 감찰부서에 신고하면 된다(경찰은 감찰을 두려워한다. 2년 연속 평가 불합격이면 해고될 수 있으므로 이때 경찰은 결코 당신과 끝까지 맞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진상을 듣지 않는 경찰에 대한 비판·건의·신소·고발·고소·신고는 경찰

의 박해 참여를 저지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경찰에 대한 가장 큰 구도이다.

만약 첫 번째 현장에서 경찰의 납치에 협조했다면 두 번째 현장(파출소)에서는 사악한 요구·명령·지시를 부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중공 경찰에게는 자신들이 해야 할 입증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화법이 있다. 예를 들면 ‘아무 잘못도 안 했으면 왜 잡혀왔겠어?’ 하며 당사자를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함정으로 직접 밀어 넣는다.

수련자가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라.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귀가 중이었는데, 교통경찰이 (위법적인 법 집행 혐의가 있음) 단지 내 신분증에 파룬궁수련자라는 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근거 없이 차단하고 억류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디를 가는지, 파룬궁을 수련하는지는 헌법이 부여한 나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여기에도 결백을 증명하려는 그림자가 있지 않은가?

행정 법 집행에서 집행자는 우선 법 집행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수련자는 “왜 나를 차단했는가?”라고 책임을 물어야지, 경찰에게 “내가 왜 차단당했는지”를 입증해서는 안 된다.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박해를 부정하는 것이며, 후자는 박해를 인정하면서 박해에 반대하는 것이다. 파룬궁수련자의 정보와 차단당한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직 구도하고 구도받는 관계만 있을 뿐이다. 차단당한 사람에게 차단당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은 입증 책임의 전도이다. 경찰이 차단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자신이 법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내놓아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일반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경찰에게 납치당했다면, 그는 분명히 신고할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며 경찰에게 해명을 요구할 것이다.

예전에 중국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사건이 공개 심리된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경찰에게 차단당했는데, 경찰은 이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람이 왜냐고 묻자 교통경찰은 “상부의 규정이다”라고 답했다. 결국 이 사람은 소장 한 장으로 교통경찰을 법정에 고소했고, 경찰과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일반인도 자신에게 이치가 있다고 확신하면 감히 공권력과 법정에서 맞선다. 하물며 대법제자는 사악의 불법 심문에 더욱 협조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일부 수련자는 《헌법》 제37조, 제38조, 제41조의 규정을 모를 수도 있지만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 [정진요지2-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은 위력이 있다] 우리는 많은 수련자가 첫 번째 불법 심문 조서를 작성할 때 묻는 대로 다 대답하며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는 법리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결국 이후 이어지는 처분보류(取保候審,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을 허가하는 조치)·무고판결·항소·재심 청구 등은 모두 첫 번째 불법 조서에 협조한 뒤 치르게 된 대가다.

이상은 개인적 견해이며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자비롭게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최근 칭다오 지역에서 전해지는 말

글/ 중국 대법제자

최근 칭다오 지역에서 어떤 수련자가 전하는 말을 들었다. ‘칭다오 지역에서 사악이 인터넷을 차단해 모든 수련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게 됐으며, 그녀가 알려주는 내부 메일함에 로그인해야만 접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당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이 온 나라의 힘을 다해도 명혜망을 차단하지 못하는데 일개 칭다오시가 차단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나는 최근 인터넷 접속이 줄곧 순조로웠다. 내게 이 말을 전한 사람은 컴퓨터 인터넷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라 나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믿지 말고 이 메일함을 퍼뜨리지 말라고 했다. 나는 “이것은 아마도 칭다오 악질 경찰들이 직접 신청한 명혜망 메일함일 수 있고 우리 칭다오 지역 대법제자들이 모두 사용하게 한 뒤 일망타진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너는 퍼뜨리지 말고, 알고 있는 수련자들에게 절대 이 메일함을 사용하지 말라고 알려주세요”라고 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일부 수련자들은 하나의 내부 메일함을 공유하며 서로 연락하기도 하지만, 이는 모두 서로 잘 알고 상당히 친숙하며 서로 속속들이 아는 수련자들끼리 메일함을 공유하는 경우다. 이 수련자처럼 잘 알지도 못하는 수련자들에게 대량으로 배포하는 형식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내부 메일함이 사악한 자들이 신청한 것이라면, 수련자가 이 메일에 로그인해 메일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열어보는 순간 그 링크나 첨부파일이 사악이

그 메일함에 로그인해 보낸 악성 소프트웨어일 경우, 사악한 자들이 그 IP 주소를 알아내고 기록에 남겨 납치와 박해를 가할 수 있다. 그들이 신청한 것이기에 그들은 직접 로그인해 이 메일함으로 악성 메일을 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내부 메일함에 로그인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은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가능성이 있다.

메일함 공유에 관하여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오늘(2월 4일) ‘각지 소식 및 교류’의 ‘최근 칭다오 지역에서 전해지는 말’을 보았다. 만약 사실이라면 칭다오 수련자들은 기술에 능한 수련자나 가상머신을 다룰 줄 아는 수련자에게 부탁해 가상머신으로 그 내부 메일함에 로그인한 뒤 비밀번호를 바꾸기를 권한다. 그렇게 하면 다른 어떤 사람도 로그인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만약 여러 명이 하나의 내부 메일함을 공유한다면 사용자마다 반드시 암호화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모든 사용자가 암호화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면 더는 메일함을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각자 메일함을 하나씩 만들어 각자 자기 메일함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이상 건의를 드린다. 허스

변호사 접견권 권리수호 안내 카드(휴대용)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아래는 ‘변호사 접견권 권리수호 안내 카드’(휴대용) 예시다.

[제1부분: 핵심 법률 근거]

- 《형사소송법》 제39조: 변호사는 ‘3증’(변호사 자격증·사무소 증명서·위임장)만으로 접견이 가능하며, 구치소는 즉시 일정을 잡아야 하고 늦어도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변호사법》 제33조: 변호사는 ‘3증’으로 구금자를 접견하되 감청받지 않는다.
- 《변호사 직무상 권리의 법적 보장에 관한 규정》(5개 부처 합동): 제7조에 구치소는 등록 미비·승인 필요·직원 동석 등 법정 사유가 아닌 이유로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제2부분: ‘이중 등록’ 반박 문구]

- 법률 효력에 관해: “《형사소송법》은 상위법이며 어떤 지방 문건이나 내부 규정(‘이중 등록’ 등)이든 국가 법률에 저촉되면 모두 무효다.”
- 행정 개입에 관해: “사법국 등록은 행정 관리 범주에 속하며 형사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문턱이 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접견을 방해하는 것은 월권 집행에 해당한다.”
- 위법 책임에 관해: “접견 방해는 심각한 절차 위법으로 사건에

대해 불법 증거 배제를 신청하게 되며, 담당자는 ‘종신 책임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부분: 긴급 권리수호 채널]

현장에서 거부당하면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 전화 12389:公安부 및 성 公安청 위법·위규 신고 전화(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
- 전화 12309: 검찰원 고소·신소 검찰부서(구치소 위법 감독 담당).
- 전화 12345: 정부 서비스 핫라인(행정 민원 기록 보존).
- 현장 요구: “당직자의 경찰 번호와 성명을 알려주십시오. 즉시 주재 검사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실행 권고:

- 출력 보관: 이 내용을 작은 카드로 인쇄해 가족이 면회를 요구하러 갈 때 지참하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 녹음 채증: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예: 민원실) 상대방의 접견 거부 사유를 기록하여 이후 고발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정념 유지: 어조는 단호하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권리를 수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법률적 진상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 안내 카드는 현지 구체적인 수사기관 명칭에 맞게 미세 조정할 수 있다.

2001년 천안문 광장에서 천목으로 본 것에서부터 말하다

글/ 후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2001년 9월, 저는 수련생 3명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베이징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천안문으로 갔습니다. 옷 속에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걸으면서 살피다가 사악한 당의 깃발이 게양된 곳 근처에 가서 현수막을 펼치고 연공을 하며 법을 실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제5장 공법을 연마하기 위해 막 자리에 앉았는데, 잠시 후 제 신체가 아주 큰 빛의 고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천목으로 보였습니다. 빛의 고리 밖에서는 산을 뒤엎고 바다를 메울 듯한 검은 그림자들이 큰 칼을 휘두르며 저희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빛의 고리에 닿자마자 소멸돼 한 층 한 층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다급히 저희에게 “빨리 도망쳐요! 경찰이 왔어요, 빨리 도망쳐요!”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1999년 3월 동료의 소개로 ‘전법륜(轉法輪)’ 책을 빌려보게 됐는데, 한번 다 읽고 나서 사람이 된 것의 진정한 의의와 방향을 대략 알게 되었습니다. 다 읽은 후, 저는 스스로 연공장을 찾아가 연공 동작을 배웠고, 처음 ‘두정포륜(頭頂抱輪)’을 배울 때 에너지장과 파룬(法輪)이 회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저는 이 공법이 아주 신기하며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저녁에 시간만 나면 연공장에 가서 법공부와 연공

을 했습니다.

저는 연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꿈속에서 심성 시험을 겪었습니다. 꿈속에서 기관지염이 재발해 호흡이 곤란하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급히 옆의 서랍을 열어 약병을 따서 손에 붓고 입으로 털어 넣으려다 물컵을 집으려는 순간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차! 나는 이제 파룬궁을 연마하니까 약을 먹지 말아야지.’ 저는 얼른 약을 뱉어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잠에서 깬습니다. 깨어난 후, 저는 책에서 봤던, 연공인에게 병이 없고 사부님께서 이미 저희의 신체를 정화해주셨다고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랍 속의 약을 정리해 밖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다시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도덕을 향상시켜 신체가 건강해지고 병 없이 온몸이 가벼워지는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이렇게 좋은 공법이 사악한 소인배 장쩌민의 질투심 때문에 탄압과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막 법을 얻은 많은 사람이 수련을 포기했습니다.

한번은 저와 수련생이 큰 가방에 자료를 챙겨 자전거를 타고 그녀의 친정이 있는 시골로 가서 진상을 알리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저희는 가면서 배포했고, 사람을 만나면 진상을 알렸습니다. 도로변의 한 마을을 지날 때,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료를 주면서 장쩌민이 어떻게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지, 파룬궁이 어떻게 억울하며, 어떻게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어떻게 병을 치료해 몸을 건강하게 하는지 이야기해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서히 몰려들더니 너도나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순식

간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에워쌌습니다. 옆에서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말을 하자 즉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필요 없으면 말을 말아요, 우리는 필요하니까.” 그때 멀지 않은 곳으로 지나가던 경찰차가 다가왔는데, 마치 저희를 보지 못한 것처럼 그냥 지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자료를 받고 흩어졌습니다.

저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길가의 마을, 학교 등 사람이 사는 곳이면 집집마다 전달했습니다. 자료를 다 배포하고 수련생의 친절에서 밥을 먹고 나오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 수련생은 꼭 돌아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갔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날도 어두운 데다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몰라서 안 되겠다 싶어 한집 문을 두드리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주인이 저희 둘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낮에 두 분을 봤어요. 나눠준 자료도 받았고요(저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뜻). 어서 들어오세요! 다른 사람이면 재워주지 않을 텐데. 마침 저희 집에 빈방이 하나 있는데, 연말에 아들이 결혼할 때 쓸 방이지만 두 분이 쓰세요!”

2001년 겨울, 저는 수련생과 함께 농촌에 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신고로 납치돼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법공부와 착실한 수련의 기초가 부족해 1차 단식 7일 후에 수련생이 먼저 풀려났고, 수련생이 나가자 제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이틀도 안 돼 또 한 수련생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홍음’을 외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따라서 외웠고 얼마 안 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다 외우자마자 다른 감방의 수련생이 같은 감방의 진상을 아는 장(張) 씨를 통해 사부님의 ‘미국 플로

리다 법회 설법' 경문을 들어보내 줬습니다. 저는 또 굶주린 듯 목마른 듯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외울 수 있게 됐고, 저는 발정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감방 안에서 감히 연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 씨는 소장이 보면 때린다고 하며, 누구든 연공하는 걸 보면 대걸레 자루로 마구 때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됐네, 때마침 발정념으로 그 배후의 사악을 제거해야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포륜(抱輪)을 할 때 소장이 왔습니다. 장 씨는 그가 창밖에서 한참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장이 웃으며 제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 그렇게 오랫동안 연공했으니 좀 쉬어야지.” 장 씨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번에는 태도가 왜 저렇게 좋죠? 왜 당신한테 저렇게 부드럽죠?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예전 같으면 큰일 났을 텐데.”

경문을 막 다 외우자 밖의 수련생이 또 사람을 통해 작은 '전법륜'을 들어보내줬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또 굶주린 듯 목마른 듯 법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구치소에서 설을 보내고 어느덧 봄이 다가왔습니다. 한번은 꿈속에서 어떤 곳에 갔는데, 아주 큰 장소에 많은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고, 저는 뒤쪽에 앉아 사부님께서 멀리 밖에서 설법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지 않아 또 수련생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넷은 상의 끝에 더는 이렇게 무기한 간혀 있을 수 없으니 단식을 하며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그들이 저희를 끌어내 음식물을 주입하려 했고, 저는 감방 문을

나서자마자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파룬따파하오, 파룬따파하오, 구치소가 좋은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러자 다른 감방의 사람들도 창가로 몰려와 구경을 했고, 어떤 사람은 따라서 “파룬따파하오”를 외쳐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구치소의 소장, 부소장, 감시 경찰, 외부 수감자 등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먹을 거야, 아니면 우리가 주입할까?”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가둔 건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겁니다. 나는 나가야 합니다. 이걸 감옥 밥이니 안 먹겠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주입당해 봤지? 그 맛이 좋지 않을 텐데, 이번에도 네가 자초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번에는 반드시 나갈 겁니다. 서서 나가지 못하면 누워서라도 나갈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감방의 수감자 몇 명이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사력을 다하면서 사부님께 그들이 주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부탁드립니다. 앞니도 조금 깨져 나갔지만 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가 감당할 것을 대신해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수감자 몇 명이 지쳐서 헐떡거렸습니다. 그때 제가 늘 겨냥해 발정념을 했던 소장이 말했습니다. “됐다, 더 했다간 사람 잡겠다.” 그렇게 그들은 손을 멈췄습니다. 다른 감방의 수감자들이 저를 다시 감방으로 옮길 때, 긴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큰소리로 “파룬따파하오, 파룬따파하오”를 외쳤습니다. 또다시 여기저기서 감방 안의 사람들이 따라서 외쳤고, 어떤 사람은 “파룬궁은 참 대단해, 저렇게 괴롭히는데도 저렇게 굳세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돼 저는 그들이 더는 나쁜 짓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

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코 안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고, 다른 수련생 두 명이 급히 와서 무슨 일인지 살폈습니다. 그때 당직자가 모니터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 무슨 일이야?” 알고 보니 그들도 두려워 시시각각 모니터실에서 저희의 동태를 살핀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 묻은 휴지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옆에 있던 수련생이 급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음식물을 주입해 기도가 막힌 거예요.” 카메라에서 소리쳤습니다. “기다려, 움직이지 마, 함부로 움직이지 마!” 잠시 후 긴 복도에서 황급하게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쿵’하고 열렸습니다. 다른 감방의 수감자 몇 명이 병원에 간다며 허둥지둥 저를 들고나갔고, 병원에도착해서도 한바탕 소동을 피웠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엑스레이를 찍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인데 그들이 저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엑스레이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다시 저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경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를 놀리는 거지? 아무 일도 없잖아.” 다른 감방의 수감자가 말했습니다. “○○ 씨, 낮에는 미안했어요! 우리도 강요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을 탓하지 않아요.”

7일째 되는 날, 구치소에서 가족에게 저희를 데려가라고 통지했습니다.

한번 또 한번 저를 보호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련 세 폭: 찼싼런하오·온 뜰에 길상·하늘이 내린 큰 복

[명혜망]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 여러분께 대련 세 폭을 제공한다.

1.

佛光普照九州秀 불광이 온 세상 비추니 구주가 빼어나고
禮儀圓明四海安 예의가 원명하니 사해가 평안하네
真善忍好 찼싼런하오(진선인은 좋습니다)

2.

睦鄰相敬人心善 이웃끼리 서로 공경하니 인심이 선하고
和裏互助世風淳 화목 속에 서로 도우니 세상 풍속 순박하네
滿院吉祥 온 뜰에 길상

3.

宇宙茫茫藏神殿 우주가 아득하고 망망한데 신전이 감춰져 있고
世間碌碌煉真仙 세상이 바쁘고 분주한데 진선으로 단련하네
天賜洪福 하늘이 내린 큰 복

더 이상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지 않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제 수련의 길을 되돌아보면 기복이 많았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한때 저는 사존께 면목이 없고 중생에게도 면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사존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저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 정법의 큰 흐름에 녹아 들었고, 진정한 법의 입자가 되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된 후 저는 수련하는 듯 마는 듯 법공부가 점점 줄어들었고, 점차 속인 생활 속에서 길을 잃어 오랜 시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2004년 시부모님과 따로 살게 됐고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법공부 시간이 점차 늘어났고, 수련생들도 더 많이 법공부하라고 권했으며 제 정념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수련생들이 프린터 한 대를 주고 새 컴퓨터 조립도 도와주어 가정 자료점이라는 ‘작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명단을 올리고 자료를 다운로드하며 소책자를 인쇄하고 CD를 굽는 법을 배웠습니다. ‘9평 공산당’이 한 권 한 권 인쇄돼 나오는 것을 보며 마음속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출근하고 밤에는 야근하며 자료를 만들었지만 매우 충실하다고 느꼈고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명혜주간’에 실린 교류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 수련생들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고, 저도 수련 체험을 써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쓴 첫 글이 ‘명혜주간’에 실렸을 때의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

다. 이후 저는 현지 진상 폭로 글 작성, 현지 진상 소책자 편집과 스티커 배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 원망심의 발생

당시 박해는 매우 심각했고 수련생들이 자주 납치됐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다양한 형식으로 지역 박해를 폭로하는 글을 썼는데, 계속해서 일부 수련생들이 “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야지 폭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가 쓴 전단과 스티커의 표현이 너무 악하고 선념이 없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반대편으로 밀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불쾌했습니다. ‘사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함부로 비난하지? 악인과 악질 경찰에게 표현을 좀 강하게 쓰는 게 뭐가 문제지? 악을 억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원망심과 쟁투심이 이미 올라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사부님을 끌어다 제 집착심을 가리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너무도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폭로는 악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 목적은 폭로 자체가 아닙니다. 진상 자료는 사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료를 쓰고 만들고 배포하는 수련생들은 반드시 자애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세인이 자료를 통해 대법제자의 선량함을 알고, 박해자들의 악행을 알며, 대법의 아름다움을 보고, 중공(중국공산당)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 선악에는 보응이 있음을 깨닫고, 선념이 일어나 대법을 선하게 대하고 중공에서 멀어져 (대법제자에게 악행을 저지른 공안·검찰·법원·사법 인원까지 포함해)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한 쟁투와 원망이 담긴 폭로 글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당시 ‘610’ 책임자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전출됐지만, 더 광적인

새 책임자가 와서 박해는 오히려 심화됐고 더 많은 수련생이 불법 판결과 강제노동, 고문을 당했습니다. 수련생들은 집착심에 이끌려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증오를 품게 됐습니다. 집착심은 하나의 마음이기때 특정 인물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념에 맞지 않는 주변의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되며, 자신의 관념에 맞지 않는 다른 수련생들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폭로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였지만, 실제로는 원망심이 수련생들 사이에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의견에 집착하며 수련생을 탓했고, 간극은 점점 깊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최근 2년간 우리 지역에 대규모 난법이 나타난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몇 해 동안 저는 주변의 많은 수련생이 일에만 바쁘고 일을 수련으로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차 모두가 개인 수련을 소홀히 하고, 세 가지 일을 잘하는 동시에 심성을 제고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듯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남이 수련하지 않고 안으로 찾지 않는 것만 보았지, 수련생이 제 거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 밖만 보며 이미 수련인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련생들이 수구(修口)하지 않는다면 불평하기 시작했고, 누가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가 늘 입에 오르내린다고 탓했습니다. 저는 수련인의 기준으로 안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수련생들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 작은 울타리에 갇혀 버렸고, 그렇게 점점 빠져나오지 못한 채 속인 속에 빠져 10여 년을 흐리멍덩하게 지냈습니다.

그 기간 사존께서 여러 차례 일깨워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10여 년간 수련생들은 비가 오

나 눈이 오나 사부님의 새 경문과 설법을 가져다주었고, 여러 수련생이 수없이 집을 찾아와 교류했으며, 어떤 수련생은 시간을 따로 내어 저와 함께 전법륜(轉法輪)을 공부해 주었습니다. 사존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로 저는 마침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 정체(整體)에 녹아들어 바르게 법을 실증하는 길을 걷다

수련생들은 저를 한없이 포용해 주었고, 단체 법공부와 법회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저도 곧 상태를 조정하여 다시 정법 수련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우리 지역에는 대규모로 사부님을 비방하고 대법을 비방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주 공간은 상하가 서로 대응하므로, 이처럼 전례 없는 사악한 비방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정체 수련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명혜망에 지역의 법에서 벗어난 현상을 폭로하는 글을 한 편 올렸는데, 글 내용에 난법과 정체 협조 문제가 포함돼 있어 지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련생들은 잇따라 저를 비난하며 제가 풍문만 듣고 썼고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글이 오히려 정체를 갈라놓고 중생구도를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협조인 수련생들은 우리 지역에서 위망이 매우 높았기에, 저는 단번에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수련생들의 비난, 분풀이, 원망이 한꺼번에 저에게 쏟아졌고, 집에 앉아 있어도 숨이 막힐 듯한 압박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수련생은 직접 찾아와 따지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이며 억울함이 가득 찼습니다. ‘수련생들이 어찌 이렇게 수구하지 않을 수 있지? 왜 굳이 모든 사람에게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리려 하는 거지? 글 내용

은 분명 사실인데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눈 뜨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정체에 이렇게 심각한 법 이탈 현상이 있는데도 감추기에만 급급하며 그 심각성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 마음이 계속 드러났지만, 사존의 보호 아래 저는 흔들림 없이 지나왔고 방해받지 않았으며 하나씩 올라오는 집착을 제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존께서 주신 보충 시험임을 알았습니다. 지난번 저는 수련생들의 수구하지 않음과 비난 때문에 넘어졌고,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구세력이 안배한 이번 시험은 지난번보다 훨씬 치밀했으며, 저를 다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저는 표면적인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않고, 사건을 벗어나 수련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찾기 시작했고, 평소 교류할 때 수련생들을 평가하며 누가 좋고 누가 부족하다고 말한 점, 속인 사회의 불공정한 일들에 대해 불평한 점 등 많은 수구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수련생들이 수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가 위험한 처지에 놓일까 봐, 박해받을까 봐, 편안한 환경을 잃을까 봐, 고생할까 봐, 가족이 걱정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수련생들이 저를 비난한 것은 제가 수련생들에게 원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협조인 수련생들이 정체를 그릇되게 이끌었다고 원망했고, 수련생들이 사람정과 사람 관념으로 사람을 보호하고 법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저는 수련생들이 진정으로 수련하지 않고 안으로 찾지 않는다고 여겼으며, 이렇게 가다가는 바른 수련의 길을 걷지 못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밖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련생들에게 정념으로

가지(加持)하고, 더 많이 정념을 보내며, 수련생들이 법에서 깨달아 올라올 수 있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이 점을 깨닫고 나자 모든 수련생이 여전히 저를 신뢰하고 걱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제 마음이 이미 어지러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길을 벗어났고 자신만이 똑똑히 보고 바르게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때 제 마음에는 이미 쟁투, 원망, 질투, 자아를 증명하려는 마음, 남을 바꾸려는 마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따지다 보면, 결국 자아를 증명하고 남을 바꾸려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각 수련생은 온 곳이 다르고, 깨달은 내용도 다르며, 다만 층차가 다를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지 않게 됐고, 마음을 가라앉혀 법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님이 계시고 법이 있으며, 수련생들은 각자의 선택이 있고 그것은 그들 각자의 길입니다.

3. 의존심을 버리고 모두가 협조인이 되다

명혜망에 우리 지역의 법에서 벗어난 현상이 게재된 이후, 기존 협조팀이 해산되고 지금까지 줄곧 협조인이 없었습니다. 현재 많은 수련생이 우리 지역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정체가 없다며, 새로운 협조인을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 매번 수련생들 각자가 자기 의견을 고수했고, 여러 번 교류하면서도 견해 차이가 생겨 수련생들 사이에 파장이 일었으며, 결국 매번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론되곤 했습니다.

수련생들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와 교류했습

니다. 몇 번은 단체 법공부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단체 법공부와 진상 알리러 나가는 시간이 적지 않게 지체됐습니다. 어느 날 한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법공부 까지 방해받고 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이미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스스로 협조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법리에 비교적 밝고, 남들보다 수련을 잘한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심생마(自心生魔)의 전조가 아니겠습니까? 아, 매일 다른 사람들이 자만한다고 느꼈는데 사실 자아가 팽창한 것은 바로 제 마음이었습니니다. 그렇게 오래 ‘잠들어’ 있다가 막 깨어났으면서, 자신의 수련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했고, 조금 했다고 벌써 다른 수련생들을 앞잡아보다니, 이것이 바로 질투심이 아니겠습니까. 정진실수(精進實修)하는 대법제자는 겸손하며,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수시로 자신을 바로 잡습니다. 오직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끼며, 자신을 잘 닦는 동시에 서둘러 사람을 구하려 할 뿐입니다.

저는 수련생들의 제안을 거절했고 제 생각을 수련생들에게 전했습니다. 당시 협조팀이 해산된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의존과 숭배였으며, 기술적으로도, 자료 면에서도, 정신적으로도 모두 협조인에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세력은 이것을 보고 협조 팀을 어긋나게 했고, 수련생들은 사람을 배우고 법을 배우지 않게 됐으며, 그 결과 전체 수련생들이 서로 다른 정도로 법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수련생들의 의존심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모두 협조인이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마치 협조인이 없으면 일을 할 중심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예전 협조팀

이 우리를 의존하게 해 치우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의존심을 버리고 각자 스스로 법을 실증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협조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에게 ‘모두가 협조인’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협조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는 협조인을 하지 않겠지만, 제가 할 수 있고 필요한 일이라면 절대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 한 생각이 법에 부합됐고, 지금 저는 많은 법 실증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련생들이 기술적인 문제로 막히면 제가 알면 가서 도와주고, 병업 고비에 부딪힌 수련생들과는 함께 법에서 제고했으며, 기타 전체 협력이 필요한 일들도 수련생들과 자발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등 자연스럽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호흡이 잘 맞으며 물 흐르듯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협조인은 아니지만, 모두가 협조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은 집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질투심, 원망심, 색욕심, 안일심, 명리심, 정(情) 등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 이상 제가 법을 실증하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일을 하면서 그것들을 닦아 없앨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집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저는 이미 사부님께서 안내해 주신 길 위를 굳건히 걷고 있으며, 어떤 시련도 제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흔들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이 방법, 우리도 참고할 수 있는가

글/ 일언(一言)

[명혜망]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정보 하나를 발표했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수련자는 정치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속인 사회 속에서 수련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를 받고 있으므로, 그들의 방법은 우리가 더 나은 보안 이념을 세우고 보안 기술을 배우는 데 일정한 참고 가치가 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

1. 현금이나 기프트카드를 사용해 본인과 관련된 어떠한 개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새 기기 또는 중고 기기를 구매한다. 중고 기기의 경우 공장 초기화를 실행한다. 모든 기기는 기존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백신 프로그램, 브라우저 플러그인 및 각종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한다.

2. 공용 와이파이(Wi-Fi)가 있는 공공장소를 찾아 익명으로 접속한다. 매우 중요한 점은 화면이 어떠한 감시 카메라나 타인의 시선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행동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필름(Privacy Screen)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3. 미국 또는 서방 국가 업체에서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와 VPN(가상사설망)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다. 이후의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이를 사용해야 한다.

4. 이제 서방의 이메일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서 오직 우리 측과의 연락에만 사용할 새로운 익명 이메일 주소를 생성해야 한다.

이 계정을 생성할 때, 절대로 본인 개인정보로 추적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입력해서는 안 된다.

5. 모든 단계를 완료한 후, 서방 VPN을 사용해 직접 다음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s://www.cia.gov>

절대로 검색 엔진을 사용해 해당 웹사이트를 찾지 말아야 한다.

6. 이미 토르(Tor)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해 사용 중이며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다크웹에 접속할 수 있다면, 다음 다크웹 사이트를 방문해 우리와 연락하기를 바란다.

<http://ciadotgov4sjwlzihbbgxnnqg3xiyrg7so2r2o3lt5wz5ypk4sxyjstad.onion> 또는 <https://www.cia.gov>

7. 해당 주소는 우리 웹사이트로 연결되며, ‘Contact’를 클릭한 뒤 연락 페이지에서 익명 이메일 주소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한다.

8. 원하는 언어로 작성하되,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내용을 작성하거나 번역하면 안 된다. 우리 측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바란다.

9. 브라우저 기록과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한 모든 흔적을 삭제한다. 메시지를 제출한 후에는 다시 우리와 연락을 시도하지 말라. 우리는 당신의 메시지를 검토할 것이다. 당신의 전용 기기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

상황이 허락된다면, 먼저 해외로 출국한 후 1단계를 실행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

우리 측에 정보를 보낼 때, 당신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위치와

연락 정보를 제공하라.

해외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이 모든 단계 또는 일부 단계를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가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우리와 연락한 후, 중앙정보국은 당신이 보낸 정보를 검토할 것이다. 이 기간에는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속인은 ‘과학적 인터넷 사용(科學上網)’이라고 말하는데, 즉 안전한 기술을 채택해 중공이 만들어낸 허위 서사, 정보 편향, 심각한 정보 비대칭을 돌파하기 위해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련생 여러분은 논의해 볼 수 있다. 안전 개념의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무엇을 배웠는가?

또다시 맞이한 적마홍양(赤馬紅羊), 2026년 새해의 ‘시대적 기질’

글/ 선과(善果)

[명혜망] 설날이 다가오고, 또다시 병오(丙午) 말띠 해인 ‘적마홍양(赤馬紅羊)’을 맞이했다. 올해 설을 보내며 심정, 경제, 치안 측면에서 여러분은 예년과 어떤 현저한 차이를 느끼는가?

1. 역사상의 적마홍양 사건

‘적마홍양’은 오행 이론에서 유래했다. 병(丙)과 정(丁)은 화(火)에 속해 적색이고, 오(午)는 말, 미(未)는 양에 속한다. ‘적마홍양의 겁(劫)’은 병오년(말띠 해)과 정미년(양띠 해)에 발생하는 정권 교체, 중대한 자연재해, 사회적 위기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기원전 255년(병오년), 진(秦) 소왕의 철기군이 서주(西周)를 평정해 진시황이 6국을 통일하는 길을 닦았다.
- 기원전 195년(병오년), 한(漢) 고조 유방이 봉어하고 여후(呂后)가 권력을 잡았다.
- 기원전 134년(정미년), 여태자(戾太子) 유거(劉據)가 태어났고 한나라가 흉노 정벌을 시작해, 이로써 30년간 전쟁하며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 기원전 74년(정미년), 한 소제(昭帝)가 봉어했다. 아들이 없었다.
.....
- 서기 826년(병오년), 당(唐) 경종이 환관에게 피살됐고, 그 후 감로의 변이 있었다.

.....

- 서기 1126년(병오년)~1127년(정미년): 정강(靖康)의 변이 발생해 금나라 군대가 북송의 도성 변량(汴梁)을 함락하고 휘종, 흠종 두 황제를 납치해 북송이 멸망했다.
- 61년 후인 서기 1187년, 송 고종이 봉어했다.
- 59년 후인 서기 1246년(병오년)~1247년(정미년): 몽골 대군이 남송 국경을 지속적으로 침범했고, 천촉(川蜀), 형양(荊襄) 등지에서 전쟁이 빈번히 발생해 남송 군민이 방어에 지쳐 국력 소모가 가중됐다.
- 60년 후인 서기 1306년(병오년)~1307년(정미년): 원나라 내부 황위 쟁탈전이 치열했고, 원 성종 테무르가 병사한 후 황실 종친이 내란을 일으켜 조정이 일시적인 격동에 빠졌다.
- 60년 후인 서기 1366년(병오년)~1367년(정미년): 주원장이 명나라 군대를 이끌고 대거 북벌과 동정을 감행해 명나라 건국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했다.

.....

- 서기 1906년(병오년), 중국동맹회가 성립 후 제1차 대규모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이는 태평천국 봉기 이후 중국 남방에서 폭발한 최대 규모의 반청(反淸) 운동이었다.
- 서기 1966년(병오년), 문화대혁명이 폭발해 10년의 대재앙이 있었다.

2. 또다시 맞이한 적마홍양, 2026년의 ‘시대적 기질’

2026년 이 적마홍양 해에 심정적으로 볼 때 중국인의 가장 현

저한 변화는, 첫째, ‘떠들썩한 기대’에서 ‘복잡하게 뒤섞임’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설을 쇠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순수한 흥분과 휴식보다는 부모님을 뵙거나 의식을 치르는 등 ‘책임형 만남’이 더 많아졌다. 둘째, 불안감이 더 보편화됐다. 직업의 안정성, 수입에 대한 예상,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이런 현실적 문제는 설날처럼 ‘대비가 강함’ 시기에 쉽게 확대된다.

또 젊은이와 중년층의 심리 분화가 더 뚜렷해졌다. 젊은이는 더 제멋대로고 욕망을 낮춰 설을 보내며 ‘누울 수 있으면 눕는다(탕핑)’. 반면 위로는 노인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둔 중년층은 어떠한가? 설 기간에 질문받는 것, 비교당하는 것, 계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요컨대 위챗 모먼트(SNS), 모임에서의 자랑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며, 저조함, 침묵, 사고 감소가 새로운 기질이 됐다.

요컨대 설 분위기는 있지만 ‘홀가분함’은 줄었다. 의식은 있지만 경사스러운 느낌은 희미해졌다. 소비는 하지만 지출은 눈에 띄게 위축됐고 더 신중해졌다.

백행의 으뜸은 효(孝)라 했으니, 고향 가는 교통비는 써야 하고 소탐대실할 수는 없다. 부모님과 아이에게 주는 세뱃돈은 돈이 아니라 정이니 써야 한다. 기본적인 설 용품은 일 년 기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등급을 낮추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고가의 선물 세트, 사치스러운 선물, 대규모 연회, 불필요한 모임, 여행 업그레이드 등은 가성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적지 않은 사람이 ‘설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보다 ‘설 연휴 후에 어떻게 할까’를 더 신경 쓴다. 많은 사람이 ‘비용을 따지지 않고 설을 쇠던’ 데서 ‘설을 쇠더라도 계산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치안은 어떠한가? ‘정교한 위협’이 상승했다. 베이징은 미국에서 사기 사건 두목 혐의를 받는 천즈(陳志)가 캄보디아에서 중국으로 송환됐음을 확인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천즈 명의의 태자(太子) 그룹은 사기로 매일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미국 재무부와 영국 외무부는 이미 천즈를 제재하고 관련 자산을 동결했는데, 여기에는 최소 1억 달러 가치의 부동산과 140억 달러 가치의 암호화폐가 포함된다. 천즈가 저지른 이런 일들이 시골 출신에 배경도 없고 막강한 관료와 자금 지원이 없는 사람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일까? 분명히 아닐 것이다.

따라서 모든 중국인에게 있어 전통적인 형태의 절도나 싸움은 흔치 않을 수 있지만, 더 악성적이고 더 치명적이며 기술 함량이 더 높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치안 위협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 귀성객을 노린 사기, 인터넷 도박, 가짜 투자의 ‘연말 본전 찾기’ 수법, 무차별 ‘묻지마’ 범죄, 음주 후 충돌, 실종, 생체 장기적출 등 각종 신종 범죄 산업은 모두 더 은폐되고 더 정밀한 치안의 위협 요소다.

맺음말

개인에게 있어 2026년은 ‘떠들썩하고 싶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단란하게 모이고 싶지만 마음속으로 셈을 하며, 명절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는 흥분하지 않은’ 새해다. 이 밖에 중국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 세상일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예견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집권하든 중국공산당(중공)이 존재하는 한 ‘중화인민의 공화’는 없으며 인민의 ‘신중국’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가오이천 기소를 통해 본 ‘비상 기관’ 속 개인의 위험

글/ 필도(筆道)

[명혜망] 2026년 1월 20일, 관련 당국은 중국공산당(중공) 국가안전부 전 부부장이자 중앙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전 부주임 가오이천이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로 관련 대우가 취소됐고, 위법·규율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이 몰수됐으며, 범죄 혐의와 관련 재산이 검찰 기관으로 이송돼 법에 따라 심사·기소됐다고 통보했다.

가오이천이 기소된 것은 겉으로 보면 반부패 뉴스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나 제도적 제약이 거의 없었던 한 기관, 즉 610사무실을 다시 한번 공적 시야로 끌어올렸다는 데 있다. 정부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이 한때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더라도, 당은 언제든지 그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610사무실은 전통적인 의미의 정부 부처가 아니라 파룬궁을 ‘소멸’시키기 위해 ‘영도소조 사무실’ 형식으로 설립되고 존재해 온 특별 기관이다. 이 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법적 지위가 모호하며, 운영이 고도로 행정화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안, 검찰, 법원, 선전 등 여러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심지어 지휘할 수 있으면서도, 법적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610’과 같은 이러한 ‘비상 기관’은 선천적으로 세 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

첫째, 법망을 벗어나 있고 권력이 집중돼 있으며 외부 견제가 결여돼 있다.

610 체계는 운영 과정에서 지도자의 한마디로 법률 법규와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우회해 구체적 사건 처리에 직접 개입하곤 했다. 이는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로, 집행·사법·행정이 형해화(形骸化)되고 책임 주체를 가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정치적 목표가 개인의 헌법적 권리 위에 군림한다.

‘안정 유지’나 ‘특별 투쟁’이 압도적인 목표로 설정되면, 수많은 파룬궁수련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 절차적 정의, 기본 권리는 완전히 부차적이며 희생 가능한 요소로 취급된다.

셋째, 책임 추궁이 장기간 부재했다.

기관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부 의사결정, 지시의 출처 및 집행 경로가 사회의 감독을 받기 어렵고, 사후에 체계적인 책임 추궁도 쉽지 않았다.

가오이천에 대한 조사와 기소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부패나 불법 문제에 대한 처리이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그의 장기 재직 기간 동안 관련 정책 집행이 초래한 사회적 결과가 왜 오랫동안 제도적 성찰과 공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610 체계와 관련된 여러 고위 관료가 잇따라 낙마한 것은 이 체계가 ‘예외 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반부패가 일부 관료 개인에만 그치고 제도 자체의 합법성, 경계, 감독 체계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유사한 문제는 다른 명목과 다른 기관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610사무실’이라는 체계의 존재와 이름만 바꾼 채 유지되는 그 기능 자체가 중국 최대의 반(反)법치 문제다.

현대 법치 사회에서 어떤 권력 기관이든 반드시 세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한다. 명확한 법적 근거, 분명한 권한과 책임의 경계, 그리고 추적 가능한 책임 체계다. 어떤 기관이 장기간 이러한 조건 밖에 떠돌아 있다면, 그 위험은 ‘정치적 필요’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누적될 뿐이다.

가오이천 사건은 어쩌면 이러한 ‘비상 기관’의 역사적 역할과 제도적 비용을 다시 성찰할 수 있는 현실적 계기일지도 모른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해일이 닥칠 때 처음에는 몇 채의 집만 무너질 수 있지만, 결국 도시 전체가 휩쓸릴 때 과연 몇 채의 집이 홀로 무사할 수 있을까?

해일이 지나간 뒤에도 끝내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전에 물을 흐리지 않았고 남의 위기를 이용해 한몫 챙기지 않았던 청렴 결백한 사람들뿐일 것이다.

‘장기 저장고’로 전락된 중국인들

글/ 동방량(東方亮)

[명혜망]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라는 이 말은 일찍이 중국공산당(중공)이 여러 세대 중국인에게 반복해서 주입했던 이상 사회의 모습이다. 바로 이러한 미래의 ‘물질적 풍요와 만민 평등’에 대한 환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소선대, 공청단, 나아가 공산당에 가입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현실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이상은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복되는 정치 운동과 권력 찬탈, 제도적 폭력 속에서 철저히 뒤바뀌고 말았다.

외국에서는 장기이식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장기를 기다리는데 수년이 걸리지만, 중국 주요 이식센터 웹사이트들은 장기 대기 시간이 단 며칠이나 몇 주에 불과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어떤 곳은 직접적으로 장기는 ‘생체’이며, 실패하면 바로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인류 장기이식 분야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현상이다.

생명의 가치가 체계적으로 하락하고 평범한 민중의 신체가 ‘조절’ 가능하고 ‘수요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장기 자원으로 간주될 때, 그리고 ‘수요에 따른 분배’가 현실에서 ‘수요에 따른 살인’과 ‘수요에 따른 생체 장기적출’로 변질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경악하며 깨닫게 된다. 소위 천국이라는 곳은 어쩌면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소수 권력 계층에게만 해당하며, 대다수 중국인은 그저 언제든 채굴될 수 있는 ‘인간 광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1. 대학생들의 빈번한 실종: 은폐된 일상인가, 말할 수 없는 진실인가?

2014년 무렵부터 중국 여러 지역에서는 여대생들이 실종되거나 살해, 혹은 침해를 당하는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실종자는 대부분 16~22세 사이 젊은 여성들이었으며, 실종 상황은 매우 유사했다. 낯선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이용 중 연락이 두절되고,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실종되거나 홀로 여행 중에 사라졌으며, 심지어 캠퍼스 주변에서 ‘증발’하듯 사라지기도 했다.

2017년 9월, 중공 제19차 당대회 개최 직전, 인터넷상에 “우한의 대학생 30여 명이 불가사의하게 실종됐다”라는 소식이 퍼지며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게시한 네티즌은 곧바로 행정 구류 10일 처분을 받았고, 관련 논의는 전면적으로

탄압당했다. 그럼에도 이후 실종된 여러 대학생 부모들은 우한 지역 대학생들의 실종이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님을 증언했지만, 대부분 사건은 입건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됐다.

2020년 이후, 중공은 “장기기증 홍보를 캠퍼스로 확대하라”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렸고, 각 지역 대학에서는 관련 선서와 등록 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일부 대학생들은 수동적 혹은 능동적으로 이른바 ‘장기기증 자원봉사자’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학생들의 실종 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25년, 전직 우한 3갑(甲)병원 간호사 장위(張宇)는 우한 광구(光谷) 일대에 30~40개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학생들이 불법 택시를 타면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권리를 주장하면, 학교 측은 대개 “CCTV 확인 결과 학생이 교문을 나갔다”는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곤 했는데, 장위는 이러한 경험들이 자녀의 안전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사회 치안 문제일까, 아니면 또 다른 내막이 있는 걸까? 만약 단순한 개별 범죄라면 왜 공안은 오랫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을까? 만약 우발적인 사건일 뿐이라면 왜 실종자들은 특정 연령대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을까?

2. 캠퍼스 내의 기이한 죽음: 후신위부터 ‘칭화위안 중학교’까지

2022년, 장시성 상라오(上饒) 고등학생 후신위(胡鑫宇)가 전면 폐쇄형 기숙학교 내에서 실종돼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다. 학교에는 CCTV가 뽁뽁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학생 한 명이 어떻게 교내에서 사라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인터

넷상에서는 그의 죽음에 중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심지어 장기적 출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쏟아졌다. 시중에는 후신위의 혈액형이 특수하여 ‘미리 매칭[조직 적합성 항원(HLA) 교차 검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건은 결국 당국에 의해 졸속으로 결론지어졌으나, 대중의 우려는 이로 인해 사라지지 않았다.

2026년 1월, 허난성 신차이(新蔡)현 ‘진스 칭화위안(今是淸華園) 고급중학교’의 13세 학생 주(朱) 모 군이 교내에서 돌연 사망했다. 더 논란이 된 것은 유족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측이 무단으로 비정상적인 구급차를 이용해 시신을 옮기려다 숨진 아이의 고모부에게 제지당한 것이다. 유족이 확인한 시신은 입가에 혈흔이 있었고 왼쪽 가슴에는 못 크기만 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후 수많은 학부모와 시민이 학교 정문에 모여 해명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즉각 무장경찰을 투입해 진압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심인성 급사’이며 가슴의 바늘 구멍은 ‘법의학관의 채혈’로 인한 것이라고 했으나, 여론은 “가족도 안 왔는데 법의학관이 왜 먼저 왔느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여러 제보자는 사망자가 Rh 음성인 ‘판다 혈액(희귀 혈액형)’이었으며, 심장을 관통하는 주사는 심장 박동을 몇 시간 동안 유지시키면서 치사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생체 장기적출에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한 가지 사실은 피할 수 없다. 고도로 폐쇄되고 전 과정이 감시되는 캠퍼스 환경에서 미성년자가 사망했음에도 진실은 신속히 봉쇄됐고, 관련자들은 통제됐으며 변호사의 조사는 차단됐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후, 많은 외지 학부모들은 밤을 새워 달려와 자녀의 전학 절차를 밟거나 아예 곁에서 지키며 등교시키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3. 대학에서 유치원까지: 공포스러운 장기기증 홍보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기증 홍보를 초중고교와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심리 저지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다.

2025년 11월, 상하이의 한 블로거는 자녀가 학교에서 질병통제센터가 배포한 설문조사를 가져왔는데, 그 내용이 적혈구 샘플링, 생물학적 샘플 식별 및 검사를 포함하고 있어 부모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폭로했다. 댓글 창에 수많은 학부모는 거절 의사를 밝히며 각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몰래 채혈’ 경험을 공유했다.

2026년 1월, 인터넷 영상에 따르면 중국 모처 초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중국 장기이식 발전 기금회’ 관련 자원봉사 조직에 가입하는 선서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다른 초등학교 3학년 과학 시험지 캡처 화면에는 여러 문항이 직접적으로 장기이식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었다.

장시성의 한 초등학교는 ‘어린이날’ 행사에서 ‘장기기증 어린 영웅’, ‘시신 및 인체 장기기증 홍보 초등학교 방문’을 주제로 1~3학년 학생들에게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생각’을 쓰게 했다.

완전한 고지된 동의와 윤리적 심사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환경에서 미성년자에게 이토록 체계적인 장기기증 유도를 하는 것이 과연 생명 교육일까, 아니면 공포에 대한 사전 길들이기일까?

4. 의료 시스템 내부의 증언: ‘묵인된’ 피비린내 나는 사슬

의료 시스템 내부로부터의 폭로는 이러한 의구심들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게 만든다.

간호사 장위는 대형 병원 내에서 환자의 혈액 샘플이 매칭을 위해 보내지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며, 일단 매칭에 성공하면 거대한 이익 사슬이 가동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상야(湘雅) 병원과 같은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 개별 의사뿐만 아니라 원장부터 집행 인력까지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장기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헬리콥터까지 동원된다고 폭로했다.

상야 제2병원 인턴 의사 뤼쑤이위(羅帥宇)는 3~6세 장기 공여자를 찾는 임무를 거부하고 수많은 제보 자료를 작성했다가, 결국 2024년 기이하게 추락사했다. 그의 죽음은 ‘협조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 사례로 여겨졌다.

의사 세원칭(謝文淸)은 군 병원 배경 중개인들이 ‘동남아 빈곤 국가의 자발적 공여자’라는 거짓말로 실제 출처를 은폐하면서 의사들이 ‘마음 편히’ 이식 수술을 완수하도록 돕는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그는 장기 보존 시간과 운송 비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장기들이 외국에서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5. DNA 데이터베이스와 유전자 은행, 학부모를 공포에 떨게 하는 정밀 타겟팅?

2002년 관영 매체들은 중국은 이미 ‘유전자 신분증’과 인간 유전자 은행을 구축했다고 공개 보도하며, 장기이식 매칭에서의 용도를 명확히 언급한 바 있다. 오늘날公安 DNA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개인의 신원과 고도로 연동돼 있으며, 전국적인 대규모 채혈

은 특히 학생 집단에 집중돼 있다.

사법 독립과 권력 견제가 결여된 체제 내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곧 개인이 정밀하게 추적돼 도망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론: 공포가 현실이 될 때, 침묵은 더 이상 중립이 아니다

과론공수련자부터 일반 대중까지, 대학생부터 갓난아기까지, 국내 병원에서 동남아 ‘생물과학 기술회사’까지, 생체 장기적출에 대한 지탄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공포 이야기를 믿기 좋아해서가 아니다. 너무나 많은 의구심에 대해 그 누구도 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가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장기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학부모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전학이나 자퇴를 선택해야만 할 때, 이른바 안정이란 이미 공포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에 불과하다.

어쩌면 진정으로 불안한 것은 “개인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가 아니라, 중공의 환경 속에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궁극적인 답은 아마도 이 공산당의 멸망이거나, 혹은 ‘인간 광물’이 고갈되는 것일 테다. 그 답을 결정하는 것은 천의(天意) 외에도 민의(民意)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답은 어느 쪽인가?

‘이중 투고’에 관하여

글/ 필농(筆農)

[명혜망] ‘이중 투고’란 동일한 원고나 작품 또는 내용을 여러 매체와 출판 플랫폼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작품의 노출 빈도와 채택 기회를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흔히 윤리나 법률 및 협력 합의상의 문제를 동반한다. ‘이중 투고’ 자체가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학술이나 매체 및 특정 전문 분야에서 이러한 행위는 흔히 비도덕적이거나 비전문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저자의 평판과 향후 발표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학술 및 전문 분야에서의 이중 투고

학술 저널: 학술 분야에서 대다수 학술지는 저자가 동일한 논문을 여러 저널에 동시에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이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돼 ‘이중 투고’라 불린다. 이는 저널이 통상적으로 원고에 대해 심사 과정(동료 심사 등)을 거치는데 만약 한 편의 논문이 여러 저널에서 동시에 채택되면 저널 측에 혼란을 야기하고 심사위원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발견되면 해당 저자는 그 저널이나 다른 저널에 기고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2. 매체 및 출판계에서의 이중 투고

뉴스 매체와 잡지: 뉴스 및 잡지 출판 분야의 일부 잡지와 웹사이트도 ‘이중 투고’에 대해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 많은 매체는

원고가 반드시 ‘독점 투고’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만약 저자가 동시에 동일한 기사를 다른 매체에 투고하면 원고가 철회되거나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자유 기고가와 칼럼니스트: 자유 기고가에게 ‘이중 투고’는 보통 비전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특히 협력 플랫폼이나 매체 측에서 ‘이중 투고’를 하지 말라고 명확히 요구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만약 강제로 이중 투고를 하면 해당 매체와의 협력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3. 비즈니스 및 마케팅 분야에서의 이중 투고

마케팅이나 광고 및 네트워크 콘텐츠 제작에서 ‘이중 투고’는 때로 동일한 광고나 기사 또는 홍보 내용을 여러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니며 오히려 많은 브랜드 홍보 전략의 일환이다. 영향 범위를 넓히고 노출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웹사이트와 저널(브랜드 및 회사)도 각 플랫폼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복되거나 동일한 내용을 과도하게 게재해 대중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저작권과 이중 투고

저작권이 관련된 경우 창작자가 사전에 플랫폼이나 출판사와 협의하지 않았다면 ‘이중 투고’는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플랫폼은 콘텐츠 저작권이 자사에 귀속되도록 요구하거나 일정 기간 콘텐츠에 대한 독점 발행권을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동일한 작품이 여러 플랫폼에서 발표되면 이는 특정 플랫폼과 체결한 독점 발행 협의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서적이거나 긴 글 또는 보고서 등이라면 일부 출판 플랫폼에서 작품의 전속 발행권을 요구하며 다른 플랫폼이나 출판물에서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5. 어떻게 ‘이중 투고’를 피할 것인가?

정직한 공개: 원고를 투고할 때 저자는 이 원고가 다른 플랫폼이나 저널에 이미 제출된 적이 있는지 출판사나 매체에 분명히 알려야 하며 상대방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일부 저널이나 플랫폼은 사전에 설명하고 허락을 얻는다면 저자의 동시 투고를 허용하기도 한다.

약관 및 협의 확인: 학술 저널이나 매체 플랫폼 또는 비즈니스 협력 등 무엇이든 각 플랫폼이나 출판 측의 투고 규칙과 계약 조항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철회 또는 선택: 다른 플랫폼에 제출하기 전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원고가 채택됐다면 원고를 철회하고 다른 플랫폼에 통지해 브랜드 및 이익 충돌을 피해야 한다.

이중 투고 관행은 마케팅과 광고 분야에서 약간의 예외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플랫폼·매체·웹사이트를 존중하고 자중하는 도덕적 윤리와 성의의 문제에 해당한다. 법적 분쟁은 별개의 문제다.

작은 상식 ‘미국 회사가 발행한 인쇄물의 저작권과 발행 문제’

글/ 필농(筆農)

[명혜망] 미국 회사가 발행한 작품의 경우, 저작권과 발행 허가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예를 들어 미국 회사가 출판한 웹사이트, 종이책, 종이 신문·잡지 및 해당 서적·신문의 전자판은 대만, 유럽에서도 열람과 구매가 가능하지만, 만약 현지에서 대량으로 발행하려면 각각 현지 회사가 미국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구매하고, 또 현지의 발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답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지역마다 저작권법, 발행 규정 및 허가 요구 사항이 서로 다르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미국의 저작권: 해당 인쇄물이 미국에서 이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며 국제 협약(예: ‘베른 협약’)의 보호를 받는다. 즉, 미국의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부분 국가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현지 시장의 저작권 보호: 미국의 저작권이 다른 국가에서도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쇄물이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행되거나 출판될 경우 현지 법률은 권한 부여나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저작권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2. 발행 허가

지역마다 서로 다른 규범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발행 허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서적·잡지 등 대량 출판물과 관련될 경우 해당 출판물이 대만의 출판 관리 규

범(예: ISBN 등록, 문화부의 출판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당 인쇄물이 특정 민감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면 현지의 내용 심사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유럽의 경우 각국의 규정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유럽연합(EU)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판물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현지의 출판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예를 들면 ISBN 등록, 세무 등록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발행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법적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정 발행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3. 기타 유의 사항

번역과 개편: 인쇄물을 번역하거나 개편해야 할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원저자 또는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저작권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 효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번역이나 개편은 별도의 허가 문제를 수반한다.

상표와 브랜드: 해당 인쇄물에 특정 상표나 브랜드명이 사용되는 경우, 특히 시장 홍보나 판매 과정에서 현지의 상표 사용 허가 또는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



▲ 2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 힐튼 호텔과 미국 의회에서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가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들이 부스를 마련하고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상과 지난 26년간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가한 잔혹한 박해를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 박해에 관심을 환기해 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11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807만 6105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